태풍을 관광자원으로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변 희 룡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도 아니고, 태풍이 남다른 모양을 가지는 지역도 아니고, 오히려 태풍으로 인해 피해나 많이 받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풍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누구에게 건의하기도 쑥스럽고, 그렇다고 사장해 버리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여기 정리해본다. 언젠가 인연이 닿아 빛을 보게 되기를 바라며.

먼저 태풍에 대한 일반의 인식 중에 한가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은 돌풍과 호우를 동반하여, 간혹 적지 않은 바람피해를 내기도 하고, 홍수나 산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막대한 양의 물을 주고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물은 가을과 겨울을 지나 다음해 장마철까지 각종 용수로 사용된다. 이 물의 가치를 전부, 수돗물 값으로만 환산하여도 태풍이 초래한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으리라. 효자태풍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태풍의 피해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겠지만, 모든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기만 바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데 이 태풍이 2000년부터 아시아식 이름으로 불리어 지기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 미국식으로 이름을 붙여 왔다. 초기에는 영어의 알파벳을 따라 여자 이름만 붙였다. 혹자는 여자의 표독하고 날카로운 점을 풍자하여 태풍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했고, 혹자는 여자처럼 부드럽게 지나가라는 바람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 후 미국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못 이겨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반반씩 섞여 명명되었다. 혹자는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유명 정치가들의 이름을 태풍에 붙였다고도 했다. 한번 큰 피해를 초래하면 그 이름을 명단에서 아예 없애 버리는 관습도 있었다.

태풍 명명법의 이러한 변천사는 태풍의 명칭이 세인의 큰 관심대상임을 의미한다.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태풍에 집중된다. 이 기간동안 태풍과 연관된 설명은 무척 많이 필요하다. 태풍의 위력이나 진로가 주 관심사이긴 하지만 태풍의 명칭이 뜻하는 바나, 유래된 문화, 그리고 그 유래와 연관된 장소에까지 세인의 관심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 정보들은 시시각각 보도하는 태풍재해의 실황중계에서 딱딱하고 무미건조함을 벗어나는 청량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태풍의 명칭 하나가 엄청난 광고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효과는 태풍경로 상에 있는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0년에 한반도를 관통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태풍 ‘사오마이’의 예를 보자. 베트남에서 ‘사오마이’라는 가구 장식목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태풍 사오마이 이후 사오마이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의 귀에 익은 이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오마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하게 되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기회가 생기면 사오마이 조각 하나라도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사오마이라고 하며 친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아직까지 사오마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사오마이란 본래 가구목의 이름이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판촉활동에 쉽게 함락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의 홍보활동 (사오마이의 장점, 사용법, 구입처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조금만 가미된다면 사오마이의 판로는 증폭될 것이며, 사오마이의 주요 생산지는 관광지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광동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만두를 사오마이라고 부른다. 태풍 사오마이를 겪은 한국인 중, 광동성을 여행하면서 중국만두 사오마이를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 버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맛과 특징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귀국한 다음 친구들에게 자랑 겸 화젯거리로 삼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만두와는 무엇이 다르다는 둥, 화젯거리가 되다보면 사오마이주변의 중국문화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다. 실로 대단한 광고효과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 태풍에 의한 피해 때문에 해당국가나 해당명칭에 대해 악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인 누가 태풍 사오마이 때문에 베트남을 미워하는가? 누가 이런 이유로 베트남 산 가구목이나 중국산 만두를 싫어하는가?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각도로 볼 때, 태풍에 사오마이란 이름을 붙인 베트남 정부는 상당히 현명한 결정을 한 셈이다. 베트남은 ‘ 사오마이 ’ 외에도 ‘ 콘손 ’, ‘ 할롱 ’ 등 관광지의 명칭도 사용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사오마이가 샛별을 뜻하기도 하며 이 뜻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 사오마이 ’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연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10개 중 세 개의 명칭에 목적이 실렸다.

베트남 외에도 목적성으로 분류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국가는 더 있다. 중국은 ‘ 하이탕 ’이란 유명한 사찰이름을 붙였고, 미크로네시아는 ‘ 닌마돌 ’이라는 유적지와 ‘ 구촐 ’이라는 향신료 이름을 붙였다. 이들 말고는 거의 모두, 전설 속의 귀신 이름이나 동식물 이름, 그리고 사람이름을 태풍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140개의 태풍 중 한국에서 붙인 이름은 개미, 나리, 장미, 수달,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나비 등 10개이며, 북한에서 붙인 이름은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매미, 메아리, 소나무, 버들, 봉선화, 민들레, 날개 등 열 개이다. 아시아 아무 곳에나 있는 동식물의 한국식 이름일 뿐인 명칭들이며, 태풍의 명칭이 가지는 광고효과나 다른 목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명칭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이 붙인 이름들도 이 범주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넓게는 아시아인이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좁게는 각 국이 자국 홍보의 절호의 기회를 헛되이 소모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태풍 명칭을 목적성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바꾸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모방하리라. 그 결과는 아시아인의 공존공영과 한국의 국익에 득이 될지언정, 손이 될 것은 없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첫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명칭이 좋다. 따라서 특정지역과 연관이 있는 명칭이라야 한다. 지역과 연관이 희박한 명칭이라면 고사, 일화 등으로 지역과의 연관을 강조하여 선전함으로서 관광목적과 연관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귀에 익은 태풍명칭이 관광동기를 유발하여, 그냥 지나칠 관광객도 “ 여기는 보고 가자 ” 하면서 연관된 지역을 찾게 하면 된다.

둘째, 한국문화를 선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문화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태풍명칭에 얽힌 한국의 역사, 야사, 문화 등을 이해한 외국인이 그 지식을 언젠가는 스스로 화젯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간략한 이야기가 포함된 명칭이 좋다.

대내적으로는, 권선징악, 홍익인간 등의 사회교육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다. 태풍 명칭이 가지는 홍보효과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풍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어 사전대비 강화와 결과적 피해경감의 효과를 노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한 인상을 풍기는 이름, 보통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이야기 거리를 가진 이름, 역사적 의미가 분명한 이름이 좋다.

이상의 목적에 적합할 만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다. 이 이름들은 필자 혼자의 생각인 만큼, 단지 방향제시에 불과하다. 국가적 행사로 명칭을 공모하여 다시 결정할 일이다. 태풍명칭으로 이용된 지역은 관광수익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지도 모른다. 정식으로 태풍이름으로 등재되기까지, 기상청 관계자들과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노고와 시간과 협의를 거쳐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개정한 이름들이 태풍 명칭으로 정식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각 명칭에 대한 해설집과 화보를 만들어 각종 홍보처 및 관광사업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연락처

주 소: (우 608-737) 부산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전 화: (051) 620-6283
E-mail : hrbyun@pknu.ac.kr

태풍명칭의 후보들

1. 마이탑 (馬耳塔)
전북 진안의 마이산에 있는 탑. 도인 이갑룡이 신의 계시를 받고 자연석으로 접착제 없이 평생동안 손으로 쌓은 탑인데 태풍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해인(海印)
팔만대장경이 있는 사찰 이름. 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바닷물이 잔잔하다는 뜻이 있다.

3. 손돌(孫乭)
강화도 연안에서 부는 바람이름. 본래는 강화도 해안에 살던 뱃사공의 이름. 파천하는 왕에게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했다가 가야 한다고 고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참살 당한 후 매년 이 날(10월 20일)이면 그 지역에 광풍이 분다고 한다.

4. 에밀레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한국 최대의 종 이름. 신비한 소리로 유명하며 또 그 소리에 얽힌 설화로도 유명하다. 경주 박물관에 있다.

5. 영등(影燈)
영등할미는 한국의 바람 신. 이에 관한 설화는 전국에 존재하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제주도이다. 영등 할미는 2월 1일 북제주군 구좌면으로 들어와서 해변을 돌면서 조개 미역 등의 씨를 뿌리고 15일에 떠난다. 이에 따라 환영제, 송별제가 지내진다.

6. 자갈치
부산의 해변에 있는 시장이름. 태풍이 빈번히 지나가는 길목이며 해산물 집산지이다. 한편 농어과의 물고기 이름이기도 하다. 포항 앞 바다, 오호츠크해 등에 서식한다.

7. 오색수
설악산 자락에 있는 약수터. 오색 약수, 오색 온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 맛이 아주 특이하다.

8. 표충 (表忠)
사명대사를 기리는 사찰(표충사)과 비각(표충비)이름. 둘 다 경남 밀양에 있다. 사명대사는 전란 중 기온의 온랭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는 설화로 유명하다. 표충비는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땀을 흘려 경고한다는 비석이다.

9. 아랑(餓狼)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이야기인 아랑전설의 주인공. 경남 밀양의 영남루가 배경이다.

10. 지귀
선덕여왕을 단 한번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에서 불이나 죽은 거지귀신. 불을 일으키므로 태풍을 약화시키는 바램을 담을 수 있다. 불국사가 배경이다.

11. 갓바위
대구의 팔공산 자락의 산 정상에 있는 돌부처. 이곳에서 처음 비는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민간설화로 유명하다.

12. 배비장(裵裨將)
제주도의 여색에 결코 유혹 당하지 않겠다고 본처에게 장담하고 부임한 배비장이, 제주목사와 기생 애랑이 만든 꾀에 빠져 뒤주 속에 갇히어 망신당하는 이야기. 배비장은 판소리 열두마당 중의 하나인 동시에 전래되어 온 한국 골계(滑稽)문학의 진수.

13. 오죽(烏竹)
율곡 이이선생과 그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모신 오죽헌(烏竹軒)의 앞 두자만 딴 것. 강원도 강릉에 있다. 율곡선생은 미래를 예견하고 국난을 대비하는 혜안을 가졌던 분.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적 인물